

전래동화에 깃든 ‘어른들’의 가치관 비판해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펴낸 최기숙씨

‘어린이’는 그 자체로 자명한 실체가 아니다. ‘천사’로서의 어린이는 근대 교육이념이 만들어낸 ‘가상’에 불과하다. 이야기에 형상화된 어린이는 어른들의 가치관에 봉사하는 ‘소모품’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 적합한 어린이 ‘상’에 대한 본원적 탐구 없이 구전설화를 번역하는 수준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어린이 문학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게 최기숙씨의 주장이다.



최기숙씨

책세상/86변형/198면/4900원

어린이문학 비평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국문학자 최기숙씨(34)가 펴낸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책세상)은 매우 흥미롭다. “어린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이 책은, 어린이 문학의 ‘주체’인 어린이의 ‘실체’를 의심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이들 비평서의 가장 밑자리에 놓인다.

‘어린이’ 개념엔 어른들의 기대심리 담겨 있어 “어린이는 보통 ‘천사’라 불립니다. 더러움과 악, 잔인함과 불순함은 어린이와 함께 쓰일 수 없는 수식어죠. 대부분의 ‘순진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은 현실의 영악한 어린이를 보게 될 때 무척 혼란스러워합니다.”

동화책도 어린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착하고 순박하게 그려 자주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그 이유를 짚는 어린이라는 개념에 투영된 어른들의 과도한 ‘기대’에서 찾는다.

“‘어린이’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학제 수립 과정에서 어른들의 교육 대상에 붙여진 편의적이고 방법적인 명칭입니다. 현대 그 안에는 아이들을 근대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억압적인 훈육이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최씨는 교훈성을 표방하는 책들이 오히려 ‘도덕적 강박관념’으로 아이들을 얼어맨다고 비판한다. 특히 전래동화는 ‘착한 어린이’라는 명제 아래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에 아이들이 순응하기를 ‘폭력적’으로 강요한다. 본문에서 최씨는 ‘어린이 지혜담’의 설화유형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고 어린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른의 욕망을 반영하는지 살핀다.

아기장수 설화에서 어린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다. 아이를 “생매장하고, 약으로 달이는” 것이 효행으로 칭송 받는다. 지혜담 속의 어린이는 어른의 고민을 푸는 ‘해결사’다. ‘나쁜 어른’과 상대해서 어린이는 어른들의 ‘사기술’을 모방하고 역이용한다. 희생담의 어린이가 생존본능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의 처절한 국면을 반영한다면 지혜담의 어린이는 기존

질서에 몰든 ‘타락천사’로 비유될 수 있다.

구전설화에 나타난 왜곡된 어린이상

“구전설화는 ‘아동기’ 개념이 생기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린이가 읽으라고 씌어진 것이 아니죠. 어린이라는 ‘창’을 통해 지배층의 봉건적 윤리관이 표출된 것이거나 혹은 배설을 통한 사회 정화 기능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구전설화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과부하된 어른들의 가치관과 기대일 뿐이죠.”

최씨는 구전설화가 여과장치 없이 읽힐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잔혹한 장면은 부차적인 문제다. 오히려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우연과 황제의 플롯이 이기심을 부추기고,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이라는 일률적인 이야기 구성이 삶의 다른 가능성과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씨는 “아동문학사자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아동문학사를 전래동화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한 니콜라예바의 지적을 인용한다.

“구전설화가 동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이야기의 ‘수준’이나 ‘수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른과 아이, 문학과 삶, 예술과 사회, 교육과 문화 향유를 포용하는 본원적 사유를 통해 새롭게 제기돼야 합니다.”

또 구전설화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화행적(話行的) 맥락에서 탄생하고 이어진다 고 지적한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교육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최씨는 구전설화가 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성에서 미적인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그는 동화를 인터넷 서술 체계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의 이야기에도 다양한 과정과 결론이 가능한 서술 방식이 어린이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강성민 기자